

식 순

1부

개회선언	사회자
국민의례	사회자
내외빈소개	사회자
개회사	신기동 지회장
축사	사회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조동민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김병추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 본부장 손규호	
이임사	신기동 지회장
취임사	신영호 신임지회장
지회장임명패 수여	조동민 협회장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신기동 지회장
우수프랜차이즈인 시상	신기동 지회장
차기임원단 임명패 수여	신영호 신임지회장
성금전달	신기동 지회장
(사)한국장애인사회복지회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	

2부

경품추첨행사	사회자
식사	

2016년 나눔,봉사 송년의 밤 지회장 이취임식

2016년 12월 13일(화)
국제신문빌딩 24층 드마리스홀



이 임 사

제2대 신기동 지회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 회원사 대표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울경지회는 이제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빛나는 산업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 할 것이며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의 회원이라는 단어가 새겨질 것 입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고 이 자리는 더욱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3년의 시간동안 여러분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200여개의 회원사 유치와 박람회 개최와 그리고 교육사업과 여러 유관기관이나 관련단체와의 업무 협약 등이 여러분께 드린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 중에 200여개의 회원사 유치를 제외하곤 모두 실행을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200여개의 회원사 유치는 다음 차기 회장이신 신영호 회장에게 임무를 넘기고 물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님 여러분!

저는 지난 3년을 여러분의 뜻을 받아 일하는 지회장, 머슴 같은 지회장으로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저희가 지회를 시작 할 때는 정말 작고 초라한 작은 단체였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론 강한 독선과 강선도 필요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여러분 저는 저의 안위만 생각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는 자체가 부끄러운 자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중앙회 조동민 회장님을 비롯하여 큰 조직을 보면서 우리지회의 나아갈 방향을 항상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에서 최초로 우리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박람회 유치라는 역사적인 큰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역사의 순간을 걷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돈없고 힘없는 과거의 부울경지회가 아니고 중앙회 다음으로 제일 큰 지회가 되었다는 자부심은 여러분의 가슴깊이 새겨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슴을 짝 열고 당당하게 말 하십시오. 나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 회원사라고 말입니다!!!!

아울러 차기 신영호 지회장께서 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어 日新又日新 하는 지회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저는 이제 부울경지회에 신기동이라는 흔적을 놓고 여러분들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은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 정유년은 여러분의 해가 되시길 바라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 임 사

제3대 신영호 지회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께 희망을 얻고 가치를 얻고 나눔을 배우며 살아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차기년도부터는 그 동안의 배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봉사하고 희생하라는 의미로 저에게 협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바르고 열심히 프랜차이즈의 위상과 발전을 위한 이 한 몸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부.울.경 협회의 변화라면 함께하고 교환하고 공유하여 각자의 사업을 확장.확대 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은 경제적 자산의 가치, 시장경제의 규모 등에서 제2의 도시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정도의 수준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프랜차이즈 부.울.경지회는 부산.울산.경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함께 각 사의 발전과 자산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밑거름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협회. 각자가 주인공이 되는 협회. 하나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